



주간통일정세 2012-22(2012.05.21~05.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2-22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매체에 일제히 등장하는 '김정일애국주의'(5/22, 연합뉴스; 노동신문)**
  - 5월 들어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김정일애국주의'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오늘 우리 당원,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 일터, 자기 고향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인민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혁명적 진군을 충정의 진군, 애국의 총진군으로 수놓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실현해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北김정은 잡초 뽑은 놀이공원 찾은 최룡해(5/23,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평양 만경대유회장 리모델링 현장을 시찰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22일 "총정치국장은 공사 중에 있는 유희장과 물놀이장을 돌아보면서 개건(리모델링) 정형에 대해 요해(了解, 파악)하고 군인 건설자들의 노력적 성과를 고무했다"며 "최고사령관(김정은)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에 새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됐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군부대 시찰... "자랑할만하다" 치하(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1501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군부대에 꾸려진 혁명사적교양실과 현지지도표식비, 군인회관 등을 둘러보고 군부대에서 자체로 제작한 전투기술기재를 살펴본 뒤 "군부대에서 최고사령관이 오기를 기다렸다는데 부대를 돌아보니 정말 자랑할만하다"고 지휘관들을 치하했으며 군부대 시찰을 마치고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음.
  - 김 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경옥 당 조직부 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부 부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이 수행함.



- '장군님과 찰칵' 약속 대신 지킨 김정은(종합)(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장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함.
  -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이뤄진 기념촬영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옥 당 조직부 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부 부부장, 조정철 인민군 보위사령관 등이 함께함.
  - 조선중앙통신은 "그날(지난해 2월 초) 임무수행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일꾼(간부)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김정일)께서는 훗날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셨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부대 일꾼과 직속 구분대 군인들을 모두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셨다고 밝힘.
  - 이날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김 위원장의 약속을 대신 지킨 김 1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며 기념촬영이 끝난 뒤에도 '김정은 결사옹위'라는 구호를 외침.
  
- 김정은, 평양시내 동물원 현지지도(5/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 김 1위원장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남포~평양 바닷물 수송관이 완공돼 중앙동물원 수족관에 바닷물을 공급함으로써 바닷물고기 기르기가 편해졌다는 간부들을 보고를 받고 만족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 1위원장의 동물원 시찰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부 1부부장, 황병서, 박춘홍, 마원춘 당 부부장, 전일춘 당 39호실 실장 등이 수행했음.



#### ■ 기타 (대내 정치)

- 5/24,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 시찰(5.24,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주규창, 김경옥, 황병서, 김영철 동행
- 5/24,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장병들과 기념사진 촬영(5.24,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옥, 황병서, 조경철 참가
- 5/25, 김정은 제1위원장, 체육성 산하기관 일꾼들·김일성경기장 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5.25, 중방)
- 5/25,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개선헌년공원 유희장 시찰 요해 및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 현지지도(5.25, 중·평방·중통)
  - 최룡해·장성택·황병서·박춘홍(개선헌년공원 유희장), 장성택·량청송·박춘홍·마원춘(창전거리·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 등 동행
- 5/27, 김정은 제1위원장, 5.26 중앙동물원 현지지도(5.27, 중통)
  - 장성택, 김양건, 한광상, 리재일, 황병서, 박춘홍, 마원춘, 전일춘 등 동행

#### 나. 경제

- **英 유전개발사, 북한 석유탐사사업 철수(5/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합작해 북한 지역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던 영국의 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가 최근 북한에서의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아미넥스는 지난 2004년 북한 전역에서 20년간 석유 탐사와 개발을 하기로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었으며 몇 개월 전 발표한 '2011년 연례보고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북한에서 석유 탐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큰 석유회사와 제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북한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북한 유전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함.
-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5/25, 지린광파망)**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 나선, 러시아 하산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됐다고 지린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지린광파망(廣播網)이 2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관광노선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인접한 훈춘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 투먼장(圖們江·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특색있는 관광노선으로 개통되었으며 훈춘에서 출발하는 북한, 러시아 관광노선은 2010년 9월 3국 간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개통되었으나 북한을 방문



- 하러면 북한 측 초청장을 받는데 10일가량이 소요돼 사실상 북한이나 러시아 관광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 중·북·러 변경 출입국 관리기관의 합의로 이번에 개통된 무비자 관광은 여권만 있으면 여행사가 2~3일간의 절차를 밟아 관광객이 첫 번째 방문국에서 두 번째 방문국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음.
- 이 노선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위모 씨는 "입국이 편리하고 속도가 빨랐다"면서 "홍콩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쪽 여행이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룡해(총정치국장), 5.22 만경대유회장 개건사업 현지 요해 및 5.21 완공을 앞둔 만수대지구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시찰(5.22,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5.24 마감단계에 이른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 공사정형 현지요해(5.24, 중통)
- 5월 24일 현재, 동해안과 북부고산지대를 제외한 전반적 지역에서 40여일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40%의 농경지대가 가뭄피해'에 직면(5.24, 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5.25 황해남도 연안군·배천군(오현협동농장 등) 농사실태 현지 요해 및 5.24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시찰(5.25,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5.26 신천군 새날농장·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농사 실태 요해 및 황남청년제염소 방문(5.27, 중방)
-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철저히 진행해 사회주의 대지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한다'며 '과학농법 도입을 통한 알곡생산목표 달성' 독려(5.27, 노동신문/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다. 사회·문화

● 北 "서해안 가뭄...6월 상순까지 계속"(5/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근 서해안 지방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0일 이상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함.
- 5월 13일과 14일 대부분 지방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으며 4월 말부터 대부분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고온현상이 계속됐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현재 주요 관개용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이 55.4%밖에 안 된다며 특히 금성호의 저수율은 0.5%라고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봄철에는 자주 지나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올봄의 대기순환체계는 북쪽의 찬 공



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위도 대륙의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고 있는 것이 가뭄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함.

- 통신은 "6월 상순까지 이처럼 대기순환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봄.

● **인구 50만 명 이상 北도시 평양 등 4곳(5/22,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 평양을 비롯해 4곳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의 민간기구 '데모그래피아'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데모그래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양의 인구는 286만5천명으로 추산돼 전 세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850곳 가운데 147위를 차지했고 함흥 75만명, 청진 70만명, 남포 60만명으로 집계됨.
- 북한의 대도시들의 인구밀도를 보면 남포가 km<sup>2</sup>당 1만7천800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중 33위에 오름.

● **北 양강도 이외 전역서 모내기 시작(5/22, 평양방송)**

- 북한 전역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평양방송이 22일 보도함.
- 평양방송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해인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며 "현재 북부 고산지대인 양강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촌에서 모내기에 들어섰다"고 밝힘.
- 지난 4일 가장 먼저 모내기를 시작한 황해남도에서는 기계화 비중을 늘려 매일 4천여 정보의 논에 모를 내고 있으며 안악과 재령에서 앞서 나간다고 방송은 전함.

● **2000년 이후 12년간 北국제논문 187건뿐(5/2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87건에 불과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과학전문 학술지 평가기관인 톰슨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 과학자들의 논문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중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은 연평균 28건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림.
- 국제학술지에 실린 북한 과학자들의 논문 중에서 77.5%인 145건은 외국 과학자들과 공동연구한 것으로, 이 중에서 중국과 공동연구가 89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27건), 호주(9건), 한국(8건), 미국(7건), 일본(5건) 순이었음.

● **北 서해안 지역 50년만의 최악 가뭄(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서해안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25일 보도

-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강우량은 1962년 이후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 지금까지 평양은 2mm, 해주는 5mm, 신의주는 1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 북한 지역에선 6월에도 강우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北 50년만의 가뭄…피해 줄이려 인간힘(종합)(5/27, 연합뉴스; 노동신문)

- 최근 모내기를 시작한 북한이 50년 만에 찾아온 봄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들어 두 차례 내놓은 '노작(勞作)'에서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한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올해 농사가 가뭄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 북한 당국이 피하려는 체제안정까지 해칠 수 있으며, 이를 의식한 듯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들이 멀다하고 가뭄 극복을 독려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란 글에서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내기 전투가 한창"이라며 "가뭄(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北총리, 황해남도 농촌 방문…가뭄극복 독려(5/27,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가 26일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농장과 안악군 오국농장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통신은 이들 농장이 불리한 날씨가 이어지는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서해안 등 대부분 지방에서 6월 상순까지 고온과 가뭄 지속 예견, "4월 26일부터 양강도·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0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5.21, 중통)
- 평양 등 서해안지방에 "근 30일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50년만의 가뭄현상 지속 및 극복할 수 없을 정도 심각" 보도(5.25, 중통)
- 전국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총동원 (5.26,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美·中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베이징서 회담(5/21, 연합뉴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2일 중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데이비스 대표는 하루 앞선 21일 서울에서 한국 측의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측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함.
  
- **'몸값' 없이 中어민 풀어줘(종합2보)(5/21, 신화통신)**
  - 중국 어선 3척을 붙잡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던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들을 석방했다고 21일 신화통신이 전함.
  -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을 떠난 어민 28명은 이날 오전 7시께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 도착함.
  -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원래 29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종 명단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출항 때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北군인들, 가루비누까지 빼앗아가(종합)(5/22, 인민일보)**
  - 북한에서 풀려난 중국 어민들이 북한 군인들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배 안에 있던 대부분 물건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22일 전함.
  - 나포됐던 어선 라오단위(遼丹漁) 23536호의 선장 한강(韓剛)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어민들을 붙잡은 것은 북한 군인들이었는데 무장한 이들은 쾌속정을 타고 접근해 어선에 오른 뒤 선원들을 곧바로 제압함.
  
- **北외무성 "G8 정상회의 대북성명 배경"(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2일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핵 실험 등 추가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 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8개국 수뇌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든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우리는 적대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 **美 "北 생각 모르겠다.. 행동으로 평가"(5/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자위적 핵 억지력' 주장과 관련,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 외무성 발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억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부인한 데 대해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식당 보이콧"...中 반북 여론 확산(5/23, 연합뉴스)**

-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반북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나닷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일체의 북한 기구와 협력하지 말자. 장사도 하지 말자. 북한 식당을 배척하자"는 한 누리꾼의 제안이 전파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음.

● **中 "현재 한반도 정세 우려"(5/2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3일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22일 G8(주요 8개국) 정상들의 대북성명에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데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 인식을 전함.
- 그는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공동으로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함.

● **백악관 "北 도발행위로 신뢰회복 실패"(5/24,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 가능성과 관련,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대남비방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추가 지원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로즈 부보좌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불행하게도 최근 몇주간 우리가 지켜본 것은 미사일 발사 실패와 남한을 향한 강도높은 비방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북한이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함.
- 이어 로즈 부보좌관은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은 그들이 이런 종류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함.

● **北에 묻혔던 국군전사자 유해 첫 귀환(5/25, 연합뉴스)**

-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겼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국방부는 25일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구가 전날 공군 C-130 수송기 편으로 하와이를 출발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면서 "북한지역 국군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힘.
- 전사자 유해 12구는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입대해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로, 미국이 북한과 합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냄.

● **〈북한단신〉 김정은, 라울 카스트로 축전에 답장(5/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그의 국방위 1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축전을 보내온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 **美정부, 中서 납북 의심 실종유학생 조사 착수(5/26, 산케이신문)**

-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
- 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5일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 문제담당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인 유학생 피랍 여부와 관련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 중 2004년 8월 실종된 유타주 출신의 데이비드 루이스 스넬(31)의 행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음.
-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 투쟁 태세를 갖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5.21), 美 전술핵무기의 남한 재배치 관련 '北의 보다 강력한 대처능력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에 '對北 적대정책 철회' 촉구(5.21, 중통/우익호전세력의 어리석은 망동)
- "현재 남조선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는 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외무성 대변인, 5.22 'G8 정상회의'의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비난 '공동성명'을 "8개국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배격 및 '미사일 및 핵억제력 확대강화' 강조 중통 대담(5.22, 중통·중·평방)
- 日 항공자위대 주력전투기로 F-35전투기를 확정, 구입계획과 관련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는 등 위험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막대한 자금을 무장장비 구입에 쏟아 붓고 있다'며 '日 군사대국화책동에 경각성' 주장(5.23, 평방/재무장 재침열에 들뜬 자들의 추태)
- 미국의 亞-太지역 미군 재편성 및 군사력강화(오끼나와 美 해병 광도 등 분산배치·항공모함 증강 등) 움직임 관련 "세계지배를 노린 공격적인 배비변경, 우리(北)를 기본과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5.25, 중통·노동신문·중방/미군재편성은 공격형의 배비변경이다)
-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對北 적대 의사와 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종식시키는 先행동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촉구(5.27, 중통·민주조선/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근본열쇠는 미국에 있다)

#### 나. 6자회담(북핵)

##### ● 中 신화통신 "北, 핵실험 실시 계획 없다"〈2보〉(5/22, 신화통신)

- 북한 외무성은 평화적인 위성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2일 평양발로 보도함.

##### ● 美 6자 수석대표 "北, 핵실험 해선 안돼"(종합)(5/23, 연합뉴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일본 도쿄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은 한다면 그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북한이 강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힘.
- 그는 이틀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측 카운트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 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하고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면담함.



- 美日 "北 핵실험 등 도발행위 않으면 대화 용의"(5/24, 교도통신; NHK)
  - 24일 교도통신과 NHK방송은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본 외무성의 아미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아미구치 부대신은 북한에 새로운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등을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대화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함.
  - 아미구치 부대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된 것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이 말대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확인되면 대화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함.
  -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는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포함돼 있어 분석이 어렵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함.

### 3. 대남정세

- 北, 통진당 수사에 "중북지랄증"(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진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중북지랄증 발작'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취명박 역적패당의 고질병인 '중북' 지랄증이 또다시 발작했다"며 "취박이 무리들이 그 무슨 시비를 가른다면서 '중북'을 떠드는 것은 남녘의 통일애국세력을 우리와 연결시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데 있다"고 주장했음.



■ 기타 (대남)

- 韓中日 정상회담시 對北언급(핵실험과 추가도발 불용, 긴밀한 대처 등) 관련 '한반도 정세 파국 책임을 회피하고 북침전쟁도발 책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망동'이라고 거듭 비난(5.21, 중통·노동신문/임종에 다달은 자의 필사적 발악)
-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 제시는 '대결정책의 총파산으로 극도의 궁지에 몰린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재차 비난(5.22, 중방·노동신문·중통/새로운 대북전략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 주한미군의 '비전투원 소개작전훈련'(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우방국 시민 22만명 즉각 대피) 실시는 '제2의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작전계획의 최종단계 준비'라고 비난 및 '핵억제력 등 강경대응' 강조(5.22, 우리민족끼리/무엇을 노린 '소개작전훈련'인가)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南 검찰의 통합진보당 수사를 "중북 지랄 증발작"이며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야욕 실현을 위한 추악한 정치테러 행위"라고 왜곡 선동(5.25, 중통/고질적인 지랄병)
- 韓-日 군사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호상 군수지원협정 등) 체결 추진 관련 '북침을 위한 군사공조 결탁, 美 주도의 3각 군사동맹의 완성을 촉진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망동'이라 비난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美·中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베이징서 회담(5/21)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2일 중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 데이비스 대표는 하루 앞선 21일 서울에서 한국 측의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측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함.
- 데이비스 대표는 우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강행 등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대표는 한반도에서 새 위기가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현실인식과 더불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달라고 미국 측에 주문할 것으로 관측됨.
- 데이비스 대표는 23일 베이징에서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 ● "北 핵실험 준비동향 또 포착" <IHS제인>(5/22)

-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관련 동향이 또다시 포착됐다고 미국 CNN방송이 군사분석기관 IHS제인의 발표를 인용, 2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IHS제인은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와 '지오아이'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인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풍계리 갭도 인근에서 탄광차를 비롯한 각종 굴착 장비들이 관측됐으며, 엄청난 양의 토사와 암석 잔해들이 갭도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특히 지난 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인근에 새로운 도로와 건축물이 포착되는 등 지난달 중순 사진과 달라진 현장 모습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IHS제인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인 제임스 하디 연구원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CNN은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도 지난달 27일 핵실험용 갭도 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광차 행렬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음.



● **中 신화통신 "北, 핵실험 실시 계획 없다" <2보>(5/22)**

- 북한 외무성은 평화적인 위성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2일 평양발로 보도했음.

● **美 6자 수석대표 "北, 핵실험 해선 안 돼" (종합)(5/23)**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일본 도쿄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은 한다면 그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북한이 강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이틀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측 카운트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하고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면담했음.
- 그는 지난 21일 서울을 방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계산착오이자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데이비스 대표는 도쿄에서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 공안위원장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하고서 귀국할 예정임.
-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음. 홍 대변인은 미중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중국의 이런 현실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美·中, 북핵-6자회담 놓고 동상이몽>(5/24)**

-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2~23일 중국 방문은 현재의 북핵 국면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인식차이가 잘 드러난 자리였다는게 외교가의 평가임. 중국의 입장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로 야기된 현재의 경색국면을 기급적 조기에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쪽으로 모아짐.
-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간 회담이 있던 날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그는 또 미중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중국의 이런 현실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의 의중은 특히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에 대한 해석에서도 드러났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다"면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를 놓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평양발 보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고 타전했음. 이 때문에 한때 북한의 속셈을 놓고 국제 외교기는 혼선을 빚기도 했음.
- 미국의 입장은 단호한 편임. 북한의 거듭된 약속 폐기를 경험한 이상 확실하게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6자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양자대화도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임.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베이징을 떠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음.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영양) 지원을 고리로 한 이른바 '2.29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상황임. 당장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공화당의 공세가 거셴. 오는 대선에서 재선고지를 밟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성과없는 회담'을 할 여유를 찾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핵실험 계획'을 부인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있는 비핵화 행보를 보이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느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조야를 안심시킬 정도의 상황 관리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북핵 국면의 향방을 좌우할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과 일본도 미국 정부의 판단에 뜻을 같이하고 있음. 특히 한국 측은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외시한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나. 미·북 관계

##### ● 美 "北 생각 모르겠다.. 행동으로 평가"(5/23)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자위적 핵 억지력' 주장과 관련,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밝혔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 외무성 발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억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평가절하했음.
- 놀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부인한 데 대해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자협약'에 참석한 뒤 북한을 겨냥, "말은 더이상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하며,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경





- 고한 것을 재확인한 것임.
-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관련한 답변을 통해 "핵실험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면서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순간도 멈춤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북·미간 '2·29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이를 파기한 이후에 그들이 한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더이상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왔다"고 지적했음.
  - 이밖에 놀런드 대변인은 미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초 북한을 방북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단 한개의 한국 언론이 지난주말 이를 보도했다"면서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할 게 없다"고 답변을 피했음.

#### ● <북미 기싸움 재개.. 국면전환 가능할까>(종합)(5/23)

-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이후 경색돼온 북핵 국면에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음. 우선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관측들도 돌고 있음.
- 미국 고위관리의 비밀리 평양행 얘기가 나오더니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돌며 핵심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가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22일 '핵실험 자제' 방침을 이미 수주일 전에 미국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나섰음.
- 미 고위관리의 평양방문 얘기는 최근 한국내에서 제기됐음.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1주일 전인 4월7일 오전 광에서 출발한 미 국방부 소속 보잉 737기가 한국 영공에 접근했으며, 이 항공기에는 미국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타고 있었다는 것임. 이 항공기는 당일 평양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임.
- 외교가의 관심은 이 항공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임. 일각에서는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타고 있었다는 관측을 제기했음. 하지만 책임있는 한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평양에 가지 않았다"고 확인했음.
- 이에 따라 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이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담당관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을 것으로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사일러 북한담당관은 현재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함께 중국을 방문중임. 또 디트라니 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북 전문가임.
- 누가 갔든 북미 양측이 지속적으로 접촉선을 유지해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임. 핵심 라인은 역시 '데이비스-김계관'임.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월23~24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대북 식량(영양) 지원을 고리로 한 '2.29합의'를 도출해냈음.



-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했고, 미측은 유엔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라며 2.29 합의 무산을 경고했음. 이 즈음 김계관 제1부상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음. 김 제1부상은 북한측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 발표 직후인 3월20일 보낸 편지에서 "위성 발사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며 이른 시일내 만남을 제안했음.
- 이렇게 보면 4월7일 미 고위관리의 평양행은 북한측에 '설득과 경고'를 보내기 위한 미 정부의 조치로 풀이됨. 하지만 북한은 4월13일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했음. 미 고위관리의 평양방문이 사실이라면 그의 임무는 성공하지 못한 셈임. 다만 북한측으로부터 광명성 3호 발사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관측됨.
- 외교가의 시선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북한이 최근 상당히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자제' 발표는 물론이고 2.29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언행을 자주 하고 있음.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와 군사적 목적의 핵실험의 차이를 강조하며 미국을 향해 "2.29 합의 이행을 포함한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2일 베이징에서 중국측 고위인사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들이 이행할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북미 양측이 그동안의 접촉을 바탕으로 향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광명성 3호 발사로 무산된 2.29 합의의 이행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상황임.
- 현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미 양측 사이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국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경우 국면 전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도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 높음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도 부득불 자위적 견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핵실험의 '실지 행동 자제'도 당분간 유효한 것이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 ● 백악관 "北 도발행위로 신뢰회복 실패"(5/24)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 가능성과 관련,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대남비방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음.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 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추가 지원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



- 됐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로즈 부보좌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불행하게도 최근 몇 주간 우리가 지켜본 것은 미사일 발사 실패와 남한을 향한 강도 높은 비방이었다"고 지적했음. 그는 "이는 북한이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음.
  - 이어 로즈 부보좌관은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은 그들이 이런 종류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식량지원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북·미) 합의 직후에 이를 파기하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식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로즈 부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양자채널이든 다자채널이든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다"고 전제했음. 이밖에 그는 최근 미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북미간 접촉에 대해서는 밝힐 게 없다"며 답변을 피했음.

#### 다. 중·북 관계

##### ● 北 '몸값' 없이 中어민 풀어줘(종합2보)(5/21)

- 중국 어선 3척을 붙잡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던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들을 석방했음.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을 떠난 어민 28명은 이날 오전 7시께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 도착했음.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원래 29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종 명단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출항 때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 신청년망(新青年網) 등 다롄 현지 매체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에서 선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음. 이들은 곧바로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음. 석방된 어선들은 북한에 '몸값'을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앞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전날 "전체 나포 어선과 어민이 풀려나 돌아가고 있다고 북한 외무성이 통보해왔다"고 밝혔음. 북한이 대가 없이 중국 어민들을 석방한 것은 나포 사태 이후 비정상적 방식으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져 중국 인콰에서 반복 여론이 급격히 확산한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지난 8일 중국 어민들을 붙잡은 정체불명의 북한 무장 세력은 외교 경로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 선주들로부터 270만 위안(약 5억 원)의 거금을 받아내려 했음. 심지어 북한 나포 세력은 송금 마감일을 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질로 잡은 어민들을 '처리하겠다'고까지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 모습을 보였음.
- 중국 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고 중국 수역에서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북한에 부담을 줬을 것이라 분석됨. 1962년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사이에 체결된 북중 국경조약에



- 따르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은 압록강 하구(동경 124도10분6초)를 기준점으로 남쪽 공해까지 이어지는 선임. 중국과 북한은 영해 이남의 서해 해역에는 동경 123도59분26초~124도26분 사이에 이어지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자유 통행 수역'을 설정했음. 이곳에서는 북한과 중국 선박 모두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북중 국경조약은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하지 않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실질적 수역'을 나누는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전하면서 동경 124도를 '북중 해상 경계선'으로 표현해왔음. 중국 어업 당국도 과거 수십년 동안 중국 어선들이 서해 동경 124도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왔고, 북한 당국도 여기에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언론 매체들은 나포 당시 해역에 있던 다른 어선에 기록된 위성항법 장치의 항적 자료 사진을 불법 조업이 없었다는 물적 증거로 제시했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선박이 오히려 경계선을 넘어 중국 측 해역에 들어와 '불법 나포' 한 것이 됨.
  - 이날 다렌항에 도착한 어민들에 따르면 나포 세력은 식량과 각종 물품을 모두 빼앗고 특히 중국 어선에 장착된 위성항법장비의 자료를 모두 삭제했음. 또한 어민들은 나포된 뒤 풀려날 때까지 한 차례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선실에 갇혀 있으면서 하루 두 끼의 죽만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증언했음.
  -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내놓지 못했음.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북한의 부패한 일부 무장 세력이 중국의 조직폭력배인 흑사회(黑社會) 등 불법 조직과 결탁해 '독자적인 외화벌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음.
  - 북한 중앙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줄곧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는 점임. 북한 중앙 정부는 사태 초기 중국 대사관에 "중국 어선 한 척이 경계선을 넘어 불법 어로를 하다 붙잡혔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고만 통보했음. 북한 정부가 억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던 북한 나포 세력이 국제적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해 상부 보고를 미뤘던 것도 사태 해결에 시간이 걸리게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어찌 됐든 북한과 중국은 '대가 없는 어민 석방'이라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 "여러분은 이미 어제 신화통신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을 취재해 보도한 내용을 봤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소식



을 제공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음.

### ● 中선양-北평양 전세기 관광코스 신설(5/22)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과 북한 평양을 전세기로 연결하는 관광코스가 다음달 12일 새로 개통된다고 길림신문이 22일 보도했음. 길림성 대산국제여행사가 6월부터 10월까지 독자 운영하는 이 전세기는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로, 관광객 수요에 따라 76~136석까지 운항할 예정임. 선양공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면 1시간 20분을 비행해 평양공항에 도착함. 총 4박 5일로 구성된 관광코스는 평양 시내와 원산을 둘러본 뒤 금강산을 관광하는 순서로 진행됨.
- 신문은 북한 금강산특구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특구를 개방한 뒤 중국에서 금강산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관광코스가 열렸다고 전했다. 다음 달에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에서 비행기 편으로 평양·원산공항으로 이동, 금강산을 관광하는 코스가 개통될 예정임.
- 또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된 연변주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선시 고성항을 출발하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도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현대아산이 2003년 2월 시작한 금강산 육로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임.

### ● "어선나포, 北中동맹 흔들지 못할 것"〈WP〉(5/24)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으로 중국내 반북(反北)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북·중 동맹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전망했음. WP는 이날 베이징(北京)발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 이후 중국에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중 동맹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납치됐던 어부들의 증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북·중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실제로 한 네티즌은 "우리는 집을 지키라고 개를 키웠는데 미친 개에게 물린 꼴이 됐다"면서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중국 정부가 약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쓸모가 있는 곳인가"라고 반문했음.
- 나포됐던 한 어선의 선주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당초 어선 1척당 6만5천달러를 요구했으며, 어선에 있던 생선과 연료, 각종 장비는 물론 선원들의 소지품까지 빼앗았다고 전한 뒤 "나는 북한이 정말 싫다. 그들을 다시 만나면 죽일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음.
- 그러나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북·중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으며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핵 야욕을 막는데 협조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WP는



- 전했음. 이들은 또 연료와 식량, 자본투자 등을 통해 그동안 북한을 지원 해온 중국이 태도를 당장 바꾸지도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 WP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가 이번 사태와 관련, '과장해서 떠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관영 매체들이 논란을 가리얏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상하이 푸단대학의 시위안화 교수는 "이번 사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인들의 반북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시각은 정부와 다르다"고 말했다.

## 라. 기 타

### ● 北외무성 "G8 정상회의 대북성명 배경"(5/22)

- 북한은 22일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핵 실험 등 추가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 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8개국 수뇌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든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변인은 "우리는 적대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평화에 호적인 노력에도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 놀음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도 부득불 자위적 견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G8 정상들은 18~19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냈음. 이들은 성명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하면 (관련 결의안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 ●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5/25)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 나선, 러시아 하산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됐다고 지린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지린광파망(廣播播網)이 25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이 관광노선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인접한 훈춘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 투먼장(圖們江·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특색있는 관광노선으



로 개통됐음. 훈춘에서 출발하는 북한, 러시아 관광노선은 2010년 9월 3국 간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개통됐음.

- 그러나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 측 초청장을 받는데 10일 가량이 소요돼 사실상 북한이나 러시아 관광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중·북·러 변경 출입국 관리기관의 합의로 이번에 개통된 무비자 관광은 여권만 있으면 여행사가 2~3일간의 절차를 밟아 관광객이 첫 번째 방문국에서 두 번째 방문국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음. 이 노선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위모 씨는 "입국이 편리하고 속도가 빨랐다"면서 "홍콩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쪽 여행이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다"고 말했음.
- 훈춘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지 여행사와 상인들은 다양한 상품과 기념품을 사가는 구매력 높은 중국, 북한,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음.
- 중국은 면적이 90km<sup>2</sup>에 이르는 훈춘국제합작시범구를 통해 국제산업 협력과 중·러, 중-북 간 국경무역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임. 이 시범구가 활성화하면 극동지역의 산업, 유통, 무역 중심지로 발돋움해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발전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英 유전개발사, 북한 석유탐사사업 철수(5/25)

- 북한과 합작해 북한 지역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던 영국의 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가 최근 북한에서의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 아미넥스는 지난 2004년 북한 전역에서 20년간 석유 탐사와 개발을 하기로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몇 개월 전 발표한 '2011년 연례보고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북한에서 석유 탐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큰 석유회사와 제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북한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북한 유전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음.
- 한 소식통은 이 회사의 철수 이유에 대해 "수익 창출 효과와 사업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음. 이에 따라 유전 개발 관련 기술과 자본이 없는 북한에서의 석유탐사와 개발 사업은 난항에 빠지게 됐음.
- 예전에도 스웨덴의 타우루스 페트롤리엄, 호주의 비치 페트롤리엄, 캐나다의 간텍, 프랑스의 토털 등 북한 지역의 석유 탐사와 채취에 관심을 보인 외국 회사들이 있었지만 이들 회사는 경제성을 이유로 북한과 계약을 맺지 않았음.

#### ● "美정부, 中서 납북 의심 실종유학생 조사 착수"(5/26)

-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5일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인 유학생 피랍 여부와 관련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 중 2004년 8월 실종된 유타주 출신의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31)의 행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 투쟁 태세를 갖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대표 등은 지난 8일 미국을 방문해 스네든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 북한 공작원에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미 정부 당국자에게 전했다.
  -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쓰촨성 청두(成都) 주재 미 총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이 머문 것으로 보이는 윈난성(雲南省)에 그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으며, 중국 공안당국이 전력을 다해 스네든을 찾았으나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미군범죄 기소전 신병인도' 합의(종합)(5/23)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한국측 위원장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 위원장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에서 '24시간 내 기소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 정부 대표 출석후 초동수사를 완료할때 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





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음.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이번 합의로 기소전 신병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음. 또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 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돼 초동수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측은 미 정부 대표가 출석할 때 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돼 미 정부 대표의 출석지연도 방지할 수 있게 됐음.
-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 미군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째 협의를 진행해 왔음.
-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기로 했음. 정부는 경찰서 내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임. 정부당국자는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SOFA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대국민 안내 팸플릿 등을 통해 향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나. 한·일 관계

### ● 日, 독도 코스 포함 국제요트대회에 트집(5/24)

- 일본 정부가 최근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열린 국제요트대회와 관련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독도 일대에서 국제요트대회가 열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후원한 데 엄중히 항의했음.
-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울진 후포항과 울릉도, 독도 등에서 열린 '제5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대한요트협회와 경북 울진군, 울릉군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했음.
- 일본은 작년까지 이 대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항의했음. 산케이신문은 작년까지는 일본 정부가 대회의 실패를 몰라 문제 삼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가 대회를 후원했기 때문에 정식 항의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국제요트대회의 코스에 독도를 포함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를 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이번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 19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했음.

● 日 정부 "징용자 보상 완전히 해결됐다"(종합)(5/25)

-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완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은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 이날 발언은 한국인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낸 데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임. 향후 징용 피해자들이나 한국 정부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것임.
- 대법원은 24일,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주), 구 일본제철(주)에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음.

다. 미·중 관계

● 中 국방부, 美 펜타곤 보고서에 "강한 불만"(5/21)

- 중국 국방부의 정옌성(耿雁生) 대변인은 21일 중국 위협론을 담은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과 더불어 "확고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음. 정 대변인은 이날 미 국방부 보고서가 중국의 군사력 건설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중국은 정당하고 정상적인 군사력 발전의 길을 가고 있고 오로지 국가 주권 수호와 안보, 국익보호가 목적이며 (외부의) 다각적인 안보 위협 대응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중국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취하고 있고 투명한 국방전략을 유지하면서 (여타 국가들과) 군 교류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목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부풀리고 있다"며 "중국은 그런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앞서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자국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연안을 넘어선 범위까지로 확장하고 있고, 해군력의 확장이 두드러지며 여기에는 미국 항모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 이에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미국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중국의 군사력 개선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난했음.



### ● 美 데이비스 "中과 北제재 문제 논의"(5/22)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중국과)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슈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밤 숙소인 웨스틴 호텔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에 근본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고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찬까지 이어진 회담을 했다면서 이날 대화가 매우 "솔직하고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중국은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핵심적(key) 국가이며 6자회담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플레이어"라며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내가 베이징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날 대화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행동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느껴졌느냐는 질문에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외교적 대화는 기밀이므로 나는 (중국과)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해 미 중 간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했음을 시사했다.
- 아울러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들이 이행할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미사일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가 오판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3일 일본 도쿄(東京)로 이동,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한 뒤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 ● 美, 中에 美 국채 직매입 첫 허용 <로이터>(5/22)

- 중국은 외국 정부로는 처음으로 미 재무부로부터 미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고 로이터가 재무부 문서를 근거로 21일 뒤늦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로써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은행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과는 달리 월가의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미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6월 말 2년 만기 미 국채를 직접 산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도 미 국채를 매각할 때는 여



- 전히 시장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로이터는 미 재무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하거나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21일 "(국채) 직접 응찰은 다수 투자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다"면서 "개별적인 응찰 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음.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중국이 1조 1천700억 달러 어치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라면서 워싱턴 측이 미 중 관계 등을 참작해 중국에 '편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음. 이들은 중국이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 국채를 사도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면 그러나 직접 사면 월가를 통할 때 처럼 금리 추이를 고려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도 미 국채 1조 1천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허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연기금, 자국 대형은행 및 일본은행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분산해 사왔음을 상기시켰음.
  - 소식통들은 중국이 지난 2009년 미 국채 매입을 은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특별 거래'한 것을 미 재무부가 알아채고 관련 규정을 바꾼 적이 있다면서 당시 중국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사실 통보 의무를 느슨하게 손질했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이런 혜택을 준 것이 미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예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브래드 세처 위원은 지난 2009년 미 외교위원회(CFR) 저널 기고에서 '중국이 미 국채를 대거 매각할 수 있음을 위협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금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음. 세처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도 근무했음.
  - 반면 미 재무부 관리들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와 정치는 '별개 사안'이란 것이 재무부의 오랜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에서 나오는 달러로 미 국채를 사는 것이 미 정부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음.

#### ● 中 "공자학원 교사 비자 문제로 美와 협의 중"(5/24)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4일 "공자(孔子)학원 교사의 비자연장 문제로 미국과 긴급 협상 중"이라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공자학원 교사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중국 정부의 견해가 뭐냐고 문자 이같이 답했음. 그는 "관련 문제가 타당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며 공자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무부는 교환방문용인 J-1 비자로 입국해 공자학원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당 중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 불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30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해 중국 정



부와 마찰을 빚고 있음. 미 행정부는 공자학원의 중국인 교사들이 강의를 지속하려면 일단 귀국하고서 그에 들어맞는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통보했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 교사들이 지난 10년간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해왔다면서 미 행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귀국을 요구하는 까닭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공자학원 교사들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갑작스런 비자 연장 불가 조치를 보도했음.
-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어와 문화를 전파시키려는 목적으로 외국에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음. 미국에는 2004년 말 메릴랜드대학에 최초로 개설됐고 현재 81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미국 내에서 논란을 빚어왔음.

#### ● 中, 美 인권보고서에 반발(종합)(5/25)

-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평가를 하자 중국이 발끈했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내용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고 편견에 가득찬 것"이라고 비판했음.
- 홍 대변인은 "중국 인권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고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이 발언권이 있다"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가장 좋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은 인권 문제에서 평등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철저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권 문제에 있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를 바란다"고 역공했음.
- 아울러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이날 "미국 정부가 142개항에 걸쳐 중국 인권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 중국의 인권개선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전면적으로 먹칠을 했다"고 보도했음. 인민망은 "이 보고서가 많은 국가들의 인권상황이 '영망진창'이라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는 이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러시아 등과 함께 중국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인민망은 "중국을 '독재국'로 규정하고 인권실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중국이 그동안 인권사업을 통해 얻은 역사적인 진보들을 깡그리 무시한 것은 물론 색안경을 끼고 하나도 맞는 게 없을 정도로 엉터리 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에서는 최근 특히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인권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정부는 정치운동가들의 입을 막고 초법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음. 중국 반체제 인사인 인권변호사 가오



즈성(高智晟)과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에 대한 탄압사례도 소개했음.

라. 미·일 관계

● 미국민 "아시아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5/23)

- 미국 국민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3일 일본 외무성에 의하면 미국의 일반국민 1천200명을 상대로 올해 실시한 대(對) 일본 여론조사 결과 50%가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라고 응답했음.
- 미국 국민은 일본 다음으로 중국(39%)을 중요한 파트너로 봤음.
-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39%가 중국, 31%가 일본을 꼽았으나 올해는 역전됐다고 외무성은 설명했다.
- 정·재계 인사와 학자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4%가 중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응답했고, 일본은 40%였음. 전문가들은 3년 연속 중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했음.
- 외무성의 조사는 작년의 경우 선택지를 한국을 포함한 6개국으로 한 반면 올해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만으로 해 조사 결과를 작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마. 미·러 관계

● "러 APEC 회의에 오바마 아닌 클린턴 참석"(종합)(5/24)

- 오는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국 측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미 백악관 고위 관료가 23일(현지시간) 밝혔음.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인 벤 로스는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에) 미국을 대표해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대표단에 누가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클린턴 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 로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지 않기로 한 결정은 "대선과 관련한 미국 국내 정치 일정 때문"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린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미국 G8 회의를 전후해 일부에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유럽 MD 시스템 구축 강행과 러시아 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미국 G8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바마 대통령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 로스는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전에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때



문에 APEC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로스는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참여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미 백악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크렘린은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 클린턴 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보실장은 이날 "APEC 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함께 클린턴 장관을 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 ● <맥폴 주러 美대사 작심 反러시아 발언>(5/26)

- 올해 1월 부임 이후 러시아내 야권 인사들과의 잦은 접촉 등으로 현지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마이클 맥폴 주러 미국 대사가 25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파장이 예상된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맥폴 대사는 이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을 방문해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러시아 내 야권 세력에 대한 미국의 자금지원 의혹을 신랄하게 반박하는 등 외교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선보였음.
- ◇ "러시아, 미군 쫓아내려고 뇌물줬다" = 맥폴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가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선 제로섬(Zero Sum) 게임과 세계를 세력권으로 나누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9년 중앙아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군기지 임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러 간 세력 대결을 거론했음.
- 대사는 당시 키르기스 정부가 마나스 기지 임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시도했다고 폭로했음. 그는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러시아는 키르기스가 마나스 기지에서 미군들을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 바키예프 대통령을 큰돈으로 매수했다"며 "물론 미국도 뇌물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보다 10배나 작은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맥폴은 이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마나스 기지 체류권을 얻어내긴 했지만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별도의 회담을 열어야 했다고 상기시켰음.
-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대(對) 아프가니스탄전 수행을 위한 보급기지로 키르기스로부터 마나스 공군 비행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마나스 기지에는 약 1천500명의 미군 병력과 민간인 노무자들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2009년 2월 바키예프 당시 키르기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기지 임대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음. 하지만 4개월 뒤 미국과 키르기스는 미군이 2014년까지 마나스 기지를 계속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기지 임대 연장과 기지 폐쇄 쪽으로 키르기스를 설득하기 위해 거



- 액의 차관을 약속하는 등 기싸움을 벌인바 있음.
- ◇ "러시아는 '맞거래'를 좋아해" = 맥폴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물밑 거래 정책'에도 불만을 표시했음. 그는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일들을 억지로 묶어 목적을 이루려하지 않지만 당신들 정부(러시아 정부)는 묶기를 아주 좋아한다"며 "이는 내 경험에 비춰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맥폴은 다시 2009년의 예를 들었음. 그는 "2009년에 러시아 대표단은 '이란 문제에 합의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루지야를 양보해라', '유럽 MD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중앙아시아를 양보해라', '북한 문제에 합의하고 싶은가. 당신들이 (러시아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는 등의 제안을 했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맞거래)은 미국의 것이 아니며 그러한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맥폴 대사는 이어 미 국무부가 러시아 야권 세력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러시아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음. 그는 "수만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나 다른 어떤 야당 인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다만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음.
  - 맥폴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음. 그는 "(뉴스 전문 방송 채널)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는 미국내에서 미 국무부가 러시아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내정 간섭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음. 러시아 투데이는 주요 국내외 뉴스에 대해 서방의 시각이 아닌 러시아적 시각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2005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현 총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정부 주도로 출범한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임. 워싱턴에 지국을 두고 있음.
  -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맥폴 대사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러시아 외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맥폴 대사가 지난 1월 러시아로 부임한 이후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방송 NTV 기자 등이 줄기차게 대사를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불만 표시였음.

## 바. 중·일 관계

### ● 中 귀보송, 방일 아예 취소(5/23)

- 중국 군부 실력자인 귀보송(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일본 방문이 취소됐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음. 일본 정부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귀보송 부주석이 가까운 장래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인했음. 차이나 데일리는 21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귀보송의 방일 취소를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은 그러나 일본과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귀보송 부주석은 애초 4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북한의 로켓 발사 시기와 겹쳐 일정을 미뤘다가 결국 취소하게 된 것임. 그는 일본 방문 중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만나는 한편 일본 군사기지를 방문한다는 일정을 잡았었음.
- 귀보송 부총리의 이같은 방일 취소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나 14~17일 도쿄에서 세계 위구르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풀이됨.

## 사. 중·러 관계

### ● 中, 러 남중국해 지지 발언에 반색(5/21)

-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공식 견해를 내놓자 중국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며 반색했음.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은 21일 필리핀 일간 더 마닐라bulletin(The Manila Bulletin)을 인용, 쿠다세프 필리핀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어떤 비당사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쿠다세프 대사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비당사국이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스카보러 섬) 분쟁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타국의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다세프 대사는 그러나 러시아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항행 자유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언론은 쿠다세프 대사의 발언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라면서 이를 중국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임.
-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 축인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 제도), 황옌다오 문제를 분쟁 당사국 사이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단독으로 맞설 힘이 부족한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국가들은 미국 등 역외 세력을 끌어들이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남중국해는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히 매장돼 있는데다 국제 수송로로 전략적 가치가 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황옌다오 등을 놓고 복잡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음.

## 아. 기 타

### ● 진먼다오-중샤먼 야간 여객선 운항(5/21)

- 대만 당국이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집권 2기 출범에 맞춰 대만, 중국 양안 접경지역 간 야간 여객선 운항을 허용했음. 대만 교통부는 내달 17일부터 진먼다오(金門島)와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사이에 야간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시보 인터넷



망이 21일 전했음.

-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오후 7시에 배가 출발하도록 하고 안전문제 등이 해소되면 오후 9시까지로 운항시간을 확대할 방침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지역은 현재 오후 5시30분에 마지막 여객선이 오가고 있음.
- 진먼다오와 샤먼은 2001년 양안이 52년간 단절됐던 직교류를 재개해 역사적으로 '소삼통(小三通)' 교류를 시작한 상징적인 지역임. 당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두 지역 간 146만 명의 방문객이 왕래했다고 밝혔음.
- 당국은 또 진먼다오 부근 다단다오(大膽島)와 얼단다오(二膽島)를 관광용으로 개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들 섬은 1940년대 후반 이후 대만군 수비대가 주둔해 왔음.

#### ● "中, 항모 2척 자체 건조 계획"〈대만 정보당국〉(5/21)

- 중국이 연내에 공식 취역할 것으로 알려진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 외에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대만 핵심 정보 당국자가 21일 밝혔음. 국가안전국 차이더성(蔡得勝) 국장은 이날 입법원(국회) 보고에서 중국은 자체 기술로 오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한 척씩의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전했음. 이들 항공모함은 2020년과 2022년 각각 건조가 끝나 군에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의 항공모함 독자 건조는 지금까지 수차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앞서 미국 펜타곤은 지난주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이미 항공모함 자체 제작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10년 안에 다수 항모 전단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한편 차이 국장은 최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양안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중국과 공동 대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 中 "소통 강화로 한반도 정세 완화해야"(5/22)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2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각 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정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중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음.
- 그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관련된 각 측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2·29 합의가 유지되고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미국의 식량(영양) 지원을 고리로 한 2·29 합의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으로 사실상 백지화됐음.
- 홍 대변인은 이어 "각 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데이비스 미국 대표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함. 데이비스 대표는 21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협의를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계산착오이자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막힌'美·北 관계 속 中 중재역할 주목>(5/23)

- 북한과 미국이 강한 어조로 서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유엔의 대북 추가제재가 현실화됐고 미국 주도로 G8(주요 8개국) 정상이 최근 북한의 추가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결의' 한 데 대해 북한이 제재가 계속되면 자위 차원의 대응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맞서는 '강 대 강' 구도에서 중국의 중재역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임.
- 일단 올 초 인도적 식량(영양) 지원,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중단이라는 이른바 '2·29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백지화'된 탓에 현재로서는 북미 간 공식적인 외교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06년과 2009년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 로드맵을 밝힐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움직일 유일한 지렛대인 중국이 이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2~23일 베이징에서 각각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류제이(劉結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분명함. 우선 데이비스 대표가 21일 한·미·일 3자 협의에서 밝힌 대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건 심각한 계산착오이자 실수라는 게 미 행정부의 인식임. 나아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음. 그런 다음에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할 수도 있다는 태도임. 다시 말해 미 행정부는 우선 북한의 추가도발 '불용'에 방점을 찍고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스탠스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지도체제의 반응 역시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강경함. 북한 외무성의 22일 발표문에서도 그런 기색이 분명했음. 이 발표문은 북한의 추가도발 때 다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G8 정상의 결의에 반박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미국을 겨냥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다행스러운 대목은 북한은 이 발표문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후 핵실험이라는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한 점임. 발표문에서 "평화적 목적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핵실험 등 군사적 조치를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표



현함으로써 그런 관측을 남겼음.

- 이를 두고 외신의 해석이 가지각색이지만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이를 "핵실험을 할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신화통신이 중국 정부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일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임. 북한은 물론 한·미·일 3국에도 서로 자극하지 말고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중에 어떤 기대를 하느냐고 묻자 "각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정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것도 그런 기류를 전한 것임.
- 중국은 그러면서 북미 간 2·29 합의 복원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음. 중국은 데이비스 대표에게도 여러 채널을 통해 2·29 합의를 다시 살려 북미 간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해당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아무 조건없는 합의 복원은 불가하다는 게 미국의 현실인식이어서 중국의 '주문'은 현재로서는 공허해 보임.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지적도 있음. 중국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들어선 김정은 지도체제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 미국이 주문하는 중국 역할론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얘기임.
- 실제 북중 양국은 최근 몇 개월 새 그럴듯한 고위층 외교채널을 가동해 오지 못해 왔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규탄 성명에 중국이 동참한 것으로 계기로 북중 간 '균열'이 우려되자 지난달 하순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방중하고 답방 격으로 2선인 리자오싱(李肇星) 전(前) 외교부장이 방북한 게 고작임.
-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외교가는 데이비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중 이후의 중국 행보에 주목하고 있음. 대북 메신저 역할은 물론 나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중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중국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 ● 美·日·호주, 내달 中 견제 해상 합동훈련(5/23)

- 미국과 일본, 호주가 다음 달 일본의 규슈(九州) 부근 태평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함. NHK 방송은 23일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규슈 남동쪽 태평양에서 다음달 6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합동 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초계기 이외에 잠수함도 참가해 해상 작전에서의 공조 및 잠수함 탐지·추격 훈련을 한다고 전했다.
- 미국과 일본, 호주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최근 수년간 안보 공조를 강화해왔음. 이번 훈련도 태평양 등 해양 진출을 적극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해상자위대의 스기모토 마사히코(杉本正彦) 막료장(참모총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국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해상자위대



로서도 이번 훈련을 통해 더욱더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과 일본, 호주는 2007년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가 5번째임.

#### ● 美日 "北 핵실험 등 도발행위 않으면 대화 용의"(5/24)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이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행위를 하지 않고 비핵화에 나설 경우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24일 교도통신과 NHK방송에 의하면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본 외무성의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음.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야마구치 부대신은 북한에 새로운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등을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대화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음.
- 야마구치 부대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된 것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이 말대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확인되면 대화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는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포함돼 있어 분석이 어렵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한 내용을 일본에 설명했다.

#### ● 美 "中인권상황 악화일로.. 탈북자 송환"(종합)(5/25)

-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불법처형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또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특히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인권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정부는 정치운동가들의 입을 막고 초법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 "당국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처형을 자행하고, 사회운동가들을 비밀리에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반체제 인사인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음. 보고서는 이런 인권 학대가 외국인사의 방문을 비롯해 민감한 기념일 행사, 이라크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리집회 등을 전후로 극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에 대해서도 "그와 부인에 대한 심각한 구타가 자행됐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음. 이 보고서는 최근 천광청 사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이전에 작성됐음. 아울러 "천광청은 위장병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면서 "그의 집에



- 접근하려는 사회운동가들은 공격을 받거나 감금당하거나 제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국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탈북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음.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모든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R)도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 "탈북지들은 강제 결혼, 노동, 매춘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돕는 개인을 체포·감금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 망명자 및 북한·중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상황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보건, 공교육, 복지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해 북한, 이란,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매우 열악한(extremely poor)' 인권국가로 지목했음.
  - 보고서는 지난해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반(反)정부 민주화사태인 이른바 '아랍의 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음. 보고서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목격한 변화에 대한 갈망은 고무적이거나 변화는 때론 불안정을 초래한다"면서 "개방적인 정치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음.
  - 또 최근 민주적 보궐선거가 실시된 미얀마에 대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개방, 민주주의, 자유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런 (미얀마의) 진전은 이란, 북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 등과 같은 폐쇄 사회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시민들은 인간존엄, 경제적 기회, 정치자유 등을 요구하며 일어섰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학대와 폭력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